

행복한 금요 편지

고개 숙인 남자

구원회¹⁾

재한외국인문화교류재단 이사장

70년대 초. 촌놈이 다니던 그 시절 국민학교는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온 천지 흐드러지게 피고, 바로 옆엔 기차가 지나다니는 지방 도시 변두리에 있었다.

어느 가을날. 한 무리의 여자애들 쪽으로 공이 굴러 갔다.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공을 집어 들었다. 촌놈은 달려가면서 외쳤다. "가스나야! 공 이리 도(줘)" "언제 봤다고 가스나니? 예의바르게 말할 수 없니?" 충격이었다. 태어나 처음 들어 보는 서울말.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 가는 줄 알았다. 처음으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다. 첫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.

같은 반. 언제나 어울려 다녔다. 밥도 같이 먹고, 개구리와 매미도 잡으러 다니고, 전국 경시대회에도 같이 나가고..... 학교를 가려면 육교를 하나 건너야 했다. 육교 난간에 촌놈에 대해 늘 야릇한 글귀가 쓰여 있어 동생과 등교할 땐 눈길을 돌리느라 애를 먹곤 했다.

꿈같던 일년. 공군 대령이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가는 그 날,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자며 서울애와 촌놈은 굳게 약속했다. 비닐로 된 반지갑과 오로라 연필 한 다스를 징표로 교환했다. 열세살 촌놈은 가슴을 탕탕치며 말했다. "나는 니밖에 없데이. 걱정 말거래이. 어른되면 내가 꼭 찾아 갈기데이....."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구원회 재한외국인문화교류재단 이사장님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, 전 국회 보좌관, 장관 보좌관, 공공기관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.

촌놈 서울 입성. 스무살. 서울시 전화번호부를 구했다. 알고 있는 것은 '화곡동'. 화곡동에 있는 공씨 성을 다 찾았다. 여자 이름 빼고. 3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.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. 빨래하신다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. "얘야, 왜 공씨 성만 이렇게 많이 적혀 있니?"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다. 이후 누구도 촌놈 주머니 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.

결혼했다. 서울말 쓰는 여성으로. 시간이 많이 흘렀다. 집사람에게 양해를 구했다. 한번 만나 보겠다고. 젊었을 땐 그리 노력해도 이뤄지지 않더니 나이가 들어서 연결이 됐다.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다. 항공사 승무원을 했단다. 이리저리 맞춰보니 만날 수도 있었다. 역시 첫 사랑은 이뤄지지 않고 부부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.

그 후. 동창회에서 1~2년에 한 번씩 본다. 술이 아주 쎄다. 촌놈은 이제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눈까지 풀린다. '마누라 기다리는데.....' 오늘도 집사람과 이 친구를 전화 연결시켜 줘야 하나 보다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'행복한 금요편지'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